

'춤으로 꿈꾸며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무용학과 창작발표회

2016년 4월 28일, 29일 양일간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한양예술극장에서 무용학과 2,3학년들의 창작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학생들은 사랑, 고민 등 일상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안무한 작품을 무대에서 선보였다. 특히 이번 해에는 사회적·정치적 문제가 많았던 현시대를 풍자하며 그려내는 작품도 볼 수



있었다. 미숙한 실력이지만 학부생들이 직접 안무하고 음악, 의상 등에 참

여하는 만큼 작품마다 개개인의 개성과 생각이 잘 묻어났다. 공연에 참여

한 학부생들은 각자 공연에 대한 아쉬움을 삼키고 다음해의 창작발표회와 졸업발표회를 기약하며 공연을 마무리하였고 공연을 본 관객들은 "여운이 남는 작품들이 많아 머릿속에 계속 잔상이 남는다."며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창작발표회를 통해 개인의 기량 향상뿐만 아니라 대학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쌓는 의미 있는 공연이 되었길 바란다.

- 강하라 기자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정기공연

뜨거운 열정의 현장, 2016 정기공연 연습실을 방문하다

찬바람이 기승을 부렸던 11월 21일, 추운 날씨마저 뜨거운 열정으로 녹인 2016년 정기공연 연습실을 방문했다. 첫 방문부터 느껴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정기공연을 준비하며 쌓아올린 선배와 후배 간의 친밀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이제, 그 화기애애하고 뜨거웠던 2016년 정기공연 연습 현장으로 떠나보고자 한다.



후 여성 무용수들의 바라춤이 시작된다. 특히, 독무를 선보이는 솔로의 카리스마와 기교가 돋보이며 군무에서는 여성미와 절제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또한, 중간에 남성 무용수 듀엣은 여성 무용수들의 카리스마와는 다른 남성미가 잘 드러난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전통적인 주제를 현대적으로 표현하여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그리움, 추억,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 그리고 내일/3학년



박영애 강사의 3학년 창작무인 '아름다운 시절'은 추억과 그리움 희망찬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애 강사는 가장 아름다운 시절인 20대 초반을 보내고 있는 3학년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길 바라며 이 작품을 안무했다고 한다.

같은 듯, 다른 듯 한 동작들이 개개인의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며, 무용수 한명 한명이 선보이는 독무는 3학년 개개인의 기량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정기공연을 두 번 경험한 선배답게 풍부한 감정표현과 기량이 돋보였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이 돋보였던 이번 2016년 정기공연 연습실을 보고나니, 그들의 무대와 앞으로 한양대학교 무용학과의 미래가 기대된다.

- 최정임 기자

무용학과 졸업발표회

4년의 화려한 대장정, 한양인으로서의 결실을 맺다!

지난 12월 2일 오후 6시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내 한양예술극장에서 무용학과 4년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는 졸업발표회가 화려하게 열렸다.

손관중 무용학과장은 "여러분은 숲속에서 작은 한 마리의 새처럼 자라왔으며 이제 이 숲을 벗어나 멀리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 것. 숲을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나무가 아닌 다른 먼 숲을 보게 될 것"이라며 학교라는 숲을 벗어나 사회로 나가는 제자들을 응원하며 건투를 빌었고, 무용학과 회장 신예희(무용학과 14학번)는 "졸업 작품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과정과 노고에 큰 박수와 격려를 보내며 그동안 이끌어주신 교수님들과 많은 선생님들,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서 든든히 힘이 되어주신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뜻을 전하며, 졸업하는 선배들을 향해 졸업은 앞둔 대학교에서의 마지막 작품이지만, 마지막이 아닌 사회로의 첫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라며 응원의 인사말을 전했다.



2016년도 졸업발표회는 그동안 학교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녹여내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사회의 시대상 반영, 고전의 재구성 또는 2016년에 이슈화된 주제를 다루거나 영상을 사용하는 등 다채롭게 꾸며졌다. 우수한 실기능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대장치, 조명을 활용한 공연은 그간 대학 4년의 보람이 담겨있었으며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을 느낄 수 있었다.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친 무용수들은 커튼콜을 마지막으로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마침내, 한양인으로서 4년간의 결실을 맺으며, 막을 내렸다.

-박이림 기자

한양대학교 아시아 최초 ISMRC 개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美'를 선보이다

2016년 8월 1일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주최한 행사가 HIT 6층 Convention Room에서 진행되었다. 국제언론 종교문화학회(ISMRC)는 미디어학, 종교, 사회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한데 모여 종교와 미디어의 접점에 대해 연구하는 학회이다. 한양대학교에서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ISMRC가 개최되는 이 자리를 기리고, 외국인들에게 한국무용과 국악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였다. 무용학과 한국무용파트 대학원 석사생 박상규와 학부생 2학년인 이해영, 성혜경은 각각 시나위 춤과 태평무(한영숙류)를 선보였다. 시나위 춤은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추었던 춤으로 남성들의 춤사위가 돋보이는 품격 있는 작품이



다. 한영숙류 태평무는 태평성대를 가리는 흥겨운 춤으로 왕비의 아름다운 자태를 느껴볼 수 있는 작품이다. 관객들에게 우리 춤의 특성을 살린 곡선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무대를 올리기 위해 남성의 춤과 여성의 춤으로 구성되어 각기 다른 매력의 춤을 선보였다. 이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화답하고 일부는 무용 동작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연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이해영 기자

설렘 반 기대 반, 첫 공연의 풋풋함 /1학년



임관규 강사의 지도하에 공연하게 될 이번 1학년 정기공연 '입춤'은 '입춤' 즉, '서서 시작하는 춤'이라는 뜻과 '처음 입문하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으며 정기공연을 처음 갖는 1학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작품이다. 기교는 많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단아하고 고운 느낌이었으며, 군무의 호흡이 돋보인 작품이다. 또한, '입춤'은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한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했으며, 1년 동안 배운 탄탄한 기본기가 엿보였다. 이 작품을 지도한 임관규 강사는 춘향이가 춤을 추는 것 같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접어서 나빌레라/2학년

조지훈 시인의 '승무'를 춤으로 표현한 이영립 강사의 창작무는 한국적인 소재를 현대적인 몸짓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나빌레라'는 양손에 바를 들고 추는 것이 특징인데, 첫 부분에 남자 무용수가 상모를 돌리며 관객들에게 작품의 시작을 알리며, 그